

광주 미술인들 해외로 ‘무한도전’

광주 작가들이 활발한 해외진출로 침체된 지역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미디어 아트 작가 이이남씨가 해외무대에서 잇따라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씨는 오는 4, 5월 세계적인 미술관 경매 업체인 소더비, 크리스티에 참여한다.

또 5월 미국 할리우드, 6월 영국 로얄칼리지오브아트 왕립학교, 8월 아프리카, 10월 호주 메트로5갤러리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뉴미디어아트 고전화와 현대 매체의 조우’를 주제로 특강도 열었다. 이날 특강에는 소더비, 크리스티 등 미국 화단 전문가들도 참여해 이씨와의 전시·경매 일정을 조율했다.

해외무대에서 가장 주목받은 국내 작가 중 한 명인 손봉채씨도 미국 무대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손씨는 이 대학 출신 설치·미디어 작가 7명과 공동 작업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터키, 스페인, 프랑스 출신의 작가들과 ‘인터내셔널 그룹’을 꾸려 현대 미술을 주도하고 있는 미술 화단에 선

대희씨와 함께 초대전을 갖는다. 이 전시는 나이갤러리와 갤러리 스트렌저의 교류에 따라 이뤄졌다. 이를 갤러리들은 8월 일본 전시, 하반기 한국 전시, 한국국제아트페어를 함께 기획함에 따라 지역 작가들의 일본 진출이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이이남·손봉채·주대희·박소빈씨 등 작품 전시·프로그램 참여 활로 개척

보인다는 계획이다.

또 익히는 계획이다. 또 하반기 뉴욕, 벨기에 Z33 갤러리 전시회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손씨는 오는 7~13일까지 일본 도쿄 갤러리 스트렌저에서 한국화가 주

조각가 고근호씨도 오는 13~15일까지 대만에서 열리는 국제일러스트예술축제에 초대됐다. 이번 축제는 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인도 등지의 작가들이 참여해 20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이다. 고씨는 지난해 나이갤러리의 초대로 참석한 도쿄 컨템퍼러리 아트페어에서 주목을 받아 이번 축제에 초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양화가 박소빈씨도 오는 4월 세계적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인 뉴욕 ISCP(국제 스튜디오&큐레이터 프로그램)에 선정돼 1년간 미국에서 활동하게 됐다. 뉴욕시의 지원을 받는 ISCP는 베니스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큐레이터들이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해마다 리서치하는 유명 레지던스이다.

박씨는 지난 2007년 뉴욕타임즈 갤러리에서의 전시로 미국 미술계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뉴욕 앤마 위버 갤러리 앤마 위버 관장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이남(오른쪽 네번째)씨가 미국 예일대 강의를 마치고, 학교 관계자들과 현대미술의 흐름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모습.



주대희 작 '오줌싸개'



박소빈 작 '깊은 향기'

남도의 자연 담은 이치현·김순희씨 도예전

10일까지 서울 갤러리 라이트



이치현 작 '삶'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김씨는 4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신도에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담양 남면 '문화의 집 생오지'

소설 창작 대학 수강생 모집



담양 남면에 위치한 '문화의 집 생오지'가 작가 양성을 위한 제3기 소설 창작 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생오지'는 소설가 문순태(사진·68·전 광주대 교수)씨가 지난 2006년 가을 지역민과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2층짜리 찻집 건물을 사들여 문화 공간으로 만든 곳이다. 2007년부터는 무료 '소설 창작 대학'을 오픈해 1·2기 수강생 중 4명이 신춘문예에 당선하는 성과를 이뤘다.

수강생들은 창작실습은 물론 '생오지 문학' 회지 발간과 '문화상' 제정 등 각적인 문화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강의는 오는 21일부터 6월 21일(매주 토요일 오후 2~5시)까지 총 36개 강좌로 진행된다. 예비모임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모집 인원은 선착순 20명이다. 문의 061-381-240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

박다연·구재향씨 두번째 무대

9일 광주 드뱅아트홀



박다연씨

구재향씨

지난해 12월부터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에 도전하고 있는 바이올리ニ스트 박다연, 피아니스트 구재향씨가 두번째 무대를 마련한다. 9일 오후 7시30분 광주 드뱅아트홀.

두 사람은 이번 연주회에서 '소나타 F장조 작품 376', '소나타 G장조 작품 373', '소나타 E플랫 장도 작품 481' 등 4곡을 연주한다.

다음 연주회는 6월 8일과 9월 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며 오는 12월 7일에는 양코로 무대가 열린다.

문의 062-651-4117.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숨기고 싶은 '치질'… 유쾌한 연극

크리에이티브드라마 '학문외과, 항문외과' 무대에

숨기고 싶은 병, 치질을 소재로 한 유쾌한 코믹극이 공연된다.

극단 크리에이티브드라마(대표 이행원)가 '학문외과, 항문외과'를 무대에 올린다. 5~7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씨디아트홀.

실제 치질 수술을 받은 배우의 경험담을 토대로 만든 이번 작품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4명이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연극이다.

남편의 빚고 외도로 마음고생 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80대 박

복녀,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50대 주부 최춘자, 고슴도치운 것만 찾아다니는 사라 등, 숨집에 다니며 사채를 끌어쓰고 있는 20대 조수진이 주 캐릭터로 등장한다.

배우 이기인씨가 극본을 썼으며 이행원씨가 연출을 맡았다. 정경아·고난영·양정인·이기인·김상오·박선영씨 등이 출연한다.

티켓가격 2만원, 1만 5천원(예매시 5천원 할인). 문의 062-521-7555.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한·아세안 전통음악 오케스트라 창설

문화협력 프로젝트 회의 열린다

한-아세안 전통음악 오케스트라 창설을 위한 제3차 한-아세안 문화협력 프로젝트 회의가 오는 9~10일 서울 밀리니엄힐튼 국회홀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케스트라 창설 공연(5월 24일 국립극장),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기념공연(5월 31일 제주도) 등 구체적인 공연 계획과 오케스트라 운영규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아세안 전통음악오케스트라는 한국과 아세안 11개국의 전통악기만으로 구성되며 모두 60여개의 악기로

이뤄진다.

오케스트라는 오는 2012년 완공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상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생태마을 디자일 아카이브 및 문화 지도 구축, 아시아 민족음악 자원 개발, 동남아시아 문화 이해를 위한 사전전 등 다양한 문화협력 프로젝트에 관한 제안도 이뤄진다.

문의 02-3704-3453.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제1회 영화 안내
www.entr cinema.co.kr

제2회 영화 안내
www.entr cinema.co.kr

제3회 영화 안내
www.entr cinema.co.kr